

‘힘과 잇속’ 따르면 불교 아니다

불교의 삼보 중 하나인 ‘승보’ 스님들의 모임인 승단이 불보, 법보와 함께 존경과 귀의의 대상이 된 것은 역대 큰스님들이 보여준 치열한 수행력과 지계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통사회가 급격히 붕괴되는 20세기로 접어들어 이후 스님들의 이런 위상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속세와 단절된 채 수행에 몰두하는 ‘수행자’로서 스님과 수행과 교화를 함께 하는 ‘성직자’ 사이의 경계가 매우 빨리 무너지고 있다. 그 가운데 종교가 정치권력의 들러리를 서거나 이권사업에 개입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는 비판도 낮설지 않은 상황이다. 불교계는 세속화 권력화의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대안은 무엇일까?

승가의 권력화·세속화만은 막아야

권력과의 위험한 ‘악수’

불교는 제3의 권력?
‘천성산지킴이’ 지을 스님이 천성산 관동터널 건설 철거를 주장하며 100일간 단식진정을 벌이던 지난 2월, 이 사건과는 별개로, 그 무렵 네티즌 사이에서는 ‘종교의 권력화’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한쪽에서는 ‘환경보호와 인권운동을 위

대중운동이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불교계는 외부의 권력과 내부적인 권력지향에 맞설 만큼 필요 충분한 힘을 갖고 있는지는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한 상태다. 그 가운데 한국불교가 제3의 권력으로 부각되고 있다. ‘불교와 권력’이 21세기 한국불교의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다.

‘불교 권력화’ 메카니즘
종교자유연구소 정용기 정책실장은 “94



중앙총회 등 종단기구들이 권력다툼을 지양하고 불교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길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숫자·재정능력 앞세워 사회 각 분야에 영향력 과시 부여된 권리 의무 남용, 나눠먹기 체제 고착 등 문제

해 종교단체가 힘을 모아 정부와 기업 등 ‘거대권력’을 상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한국불교가 불사 등 내부문제는 덮어둔 채 숫자의 힘으로 정부와 기업의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논쟁과 관련된 댓글이 인터넷 토론방을 달구었고 그 결과 지을 스님을 반대하는 ‘안티지을’ 사이트가 생겨나는 등 파장이 만만치 않았다.

민주화가 진행되며 사라져간 독재정권을 대신해 새로운 권력들이 생겨나고 있다. ‘삼성공화국 신드롬’을 일으킨 기업권력, 속칭 ‘밤의 황제’로 칭해졌던 언론권력, 시민들이 만든 ‘시민단체’들도 우리사회의 새로운 권력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중 종교단체들은 강한 응집력을 가진 신도조직력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기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불교권력 개혁은 진행중
불교계는 50~80년대 정치권력에 희생당하는 쓰라린 경험을 했다. 그 결과 94년에 일어난 ‘종단개혁’은 불교 인권을 향한 ‘권력지향’에 맞서기 위해 벌어진 민주화

년 종단개혁이 서의현 총무원장 체제의 절대 권력을 붕괴시킨 결과, 한국불교는 근대적인 권력시스템을 창출해 냈다. 그러나 불과 10년이 지난 지금 민주화를 위해 도입된 선거제도가 ‘계파정치’를 낳고 있다. ‘권력’의 논리가 교단 상·하층부를 관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권력의 중심점은 어디일까? 전북대 강준만 교수는 전통적으로 스승의 수행가공을 잇는 자발적인 모임인 ‘문중’을 불교 권력화의 핵심 중 하나로 꼽았다. 그는 “문중제도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권력지향의 패거리주의’라는 병폐의 하나로 전락하고 말았다. 각종 선거 등에서 ‘문중’은 00문중에서 나왔으니 총무원장은 00문중에서 나와야한다’는 식의 문중이기주의가 횡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중권력은 각종 선거를 통해 확대 재생산된다. 문중은 교구본사주지 등 주주소인에 같은 문중스님을 앉히기 위해 영향력을 극대화한다. 본사주지가 말사주지 인사권 등 중요 행정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문중 소속 스님이 본사 주지소임을

맡으면 자동적으로 같은 문중스님들이 말사주지를 차지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문중들은 각종 선거 운동에서 총력전을 벌이게 되고 그 결과 혼탁 과열 선거가 재연된다. 최근 모 총회에서 방장과 주지 선출을 놓고 벌어졌던 갈등의 배경에도 ‘문중’을 중심으로 한 권력들이 놓여있다.

문중에서 출발한 권력화의 흐름은 중앙총무기관 교역직과 중회의원 자리를 놓고 다시 갈등을 빚는다. 총무원장 선거 때마다 급격한 부정선거를 둘러싼 시비가 끊이지 않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각종 총법과 총책을 만들어내는 중앙총회의 권력화도 현재진행형이다. 정용기 실장은 총회에 대해 “권력기구로서 속세의 국회를 능가하고 있다. 법제 마련보다 정파간 싸움에 몰두하고 이권에 따라 이합분주 등 행정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문중 소속 스님이 본사 주지소임을

불교 권력화의 순기능을 살려라
‘불교 권력화’에 대한 평가는 아직 엇갈리고 있다. 일부 환경단체나 시민운동가들은 남북교류 사업, 환경과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종교단체의 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천성산과 북한산 살리기 운동’이 가능했던 것은 불교단 거대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란 논리다.

그러나 여기에도 만만치 않다. 사람이 ‘검은 돈’의 세력장소로 이용되거나, 사람이 환경을 파괴하고 힘으로 무마시키려는 경우도 있다. 종교단체가 사회적 기여 이상으로 과도한 지위와 권한을 누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일단 권력화의 길에 접어들어 이상 불교가 이것을 회피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불교권력이란 불교의 사회적 위상에 따라 부여된 권리와 의무이기 때문이다. 최근 진행된 각종 환경운동에서 보듯 불교권력

이 사회발전과 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작용한다면 불교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동국대 정각원장 진월 스님은 “불교 권력화는 양날을 가진 검과 같다”며 “부여된 권력에 맞게 책임지는 자세, 합리적이면 공정한 선거제도 정착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어디가 썩었고 어디가

산중불교에서 ‘도시불교’의 시대
서울 모 사찰에 다니는 김성현 기자(40)는 주지스님이 신도들과 함께 노래방에서 노래를 불렀다는 이야기를 듣고 허부터 왔다. “수행만 해도 시간이 모자랄 판에 스님의 행동이 재가자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인 박영애(38) 보살의 의견은 다르다. “요새 포교를 하려면 신도들에게 친근한 스님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조선왕조의 탄압을 받아 산중에 머물렀던 한국불교가 20세기 이후 세간에 나오면서 생겨난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고고하게 수행을 하거나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처장은 “한 대형사찰 수입의 70% 이상이 불공과 불전, 부처님오신날 수입에 달려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수입원들이 기복과 관련을 맺으면서 종교적인 공동체성의 붕괴를 촉진하고, 상품화되고 소외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재가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이들 수입원은 중형사찰의 수입 97%, 소형 사찰 수입의 86%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다.

부전 스님의 제사담당 노동자화도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이다. 출가 이후 여러 절을 떠돌며 부전 스님을 맡았다는 한 비구니 스님은 “기도소임을 맡은 부전 스님이 고을된 ‘목탁노동자’로 전락하면서 재가자인 종무원에게 구박을 받기도 한다”며 한숨을 쉰다. 일본불교의 경우에는 부전 역할을 하는 스님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했다는 보도가 해외포식에 등장하기도 했다.

사찰 경제의 사적 소유, 사설사업
불교 세속화는 사찰경제의 사적 소유화로 나아가고 있다. 그 핵심에 스님 개인이 설립해 대를 잇는 ‘사설사업 문제’가 걸려있다. 2004년 조계종 공찰은 8백 7십여 곳인 반면 사설사업의 숫자는 이미 1천 3백여 곳을 넘어서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사설사업 문제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다.

사설사업이 문제가 되는 것은 불교재산의 유출을 부추기기 때문이다. 공찰이나 관할로 사찰 주지소임을 맡는 동안 사설사업을 짓는 일 적지 않게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주지가 되기 위해 급전이 오가고 부

종교 본연의 가르침 잃은 상품화·산업화에 우려

지속적 교육, 불교-현실 접목시킨 해결방안 나와야

해서 한국불교가 현실사회에 뿌리내릴 수 없다. 불교 세속화는 피할 수 없는 대세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종교의 세속화란?
불교적 식생활이 ‘웰빙 열풍’을 통해 알려지거나 불교수행법이 관심을 모으는 것은 일종의 긍정적 세속화다. 반면에 종교가 본연의 모습에서 벗어나 오히려 세간 정치 경제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는 현상은 부정적 세속화의 한 단면일 것이다.

한신대 강인철 교수는 부정적 세속화가 진행되면 결국 종교의 상품화에 이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종교는 시장경제의 한 부분으로 편입돼 상품화되는 과정을 밟는다”고 말했다.

종교가 본연의 가르침과 윤리를 잃어버리고 하나의 상품으로 전락하고 자본주의의 논리가 불교적 가치를 좌우한다면 한국 불교가 설 자리는 많지 않다.

상품화하는 불교
‘불교의 상품화’란 말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다. 참여불교재가연대 윤남진 사무

장비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도굴을 빚자한 호화 사설사업을 만드는 것도 불교의 이미지를 흐리고 있다.

불교적 가치와 현대사회 접목
불교 세속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복적인 신앙행태를 극복해야 한다. 한국 불교의 정서상 기복성을 완전히 탈피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불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불교계 내부에서 변화의 흐름이 만들어져야 한다.

또한 불교적 가치와 현대사회를 접목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생활철학 체험프로그램인 ‘템플스테이’처럼 불교와 현실의 접목을 무조건 나쁜 시각에서 바라볼 일도 아니다.

동해 삼화사 주지 원명 스님은 “사람이 지역사회 공헌도로 평가받는 시대가 조만간 다가올 것이다. 일반기업들도 사회 흐름을 좇아가기 위해 ‘윤리경영’ ‘고객만족 경영’ 등을 내세우고 활동하는 것처럼 불교 역시 미리 사회의 흐름을 읽고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유신 기자

수맥과 차단카드 나왔다

자고나면 머리 맑고 컨디션 좋아

왜! 수맥파를 차단해야 하나?
일본의 산업화학연구소는 수맥파가 흐르는 곳을 만병의 근원이 된다는 뜻에서 ‘병인성지대’라는 표현을 쓴다. 수맥파는 투과력과 침투력이 강해 모든 물질을 관통하고 종파로 발산되어 생체리듬을 교란시켜 수맥파가 흐르는 곳에서 장기간 살게되면 체질에 따라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한국수맥파연구회에서 제작한 멜토수맥파 차단카드를 간편하게 안방 침대 바닥에 놓고 멜토차단캡은 거실 구석에 고정시켜 놓으면 종파로 올라오는 수맥파를 중화시켜서 차단한다. 가격75,000원 문의(02)741-4477

오마니 반메움 건강벨트

축복의 벨트!
성공의 벨트!
지혜의 벨트!

음악의 조화로 만사가 행통된다는 오마니 반메움 건강벨트가 불교 법구 전문업체인 불광사에서 출시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세상 사는 동안 악인을 만나지 않고, 정의롭게 살며, 나쁜곳에 빠지지 않으며, 어려움에 처해있을때 3분의 지혜를 받아 해결되고, 동서남북의 복을 받아 시작부터 끝이 하는일 마다 풍요롭게 되는 뜻을 담은 법구벨트다. 또한 일반벨트와는 달리 건강기능을 갖춘 벨트로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음이온과 원적외선이 발생되며 허리와 장과 간을 튼튼하게 하는 멜토에너지까지 발생되는 천연가죽으로된 고품격 고급벨트로 만사 행통하는 선물로 품위가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정성껏 보내준다. 가격75,000원 문의(02)741-4488 농협053-12-102911

평생 부자지갑 관세음보살 福지갑 출시

원하는 재물과 땅과 땅속에 있는 보물까지도 얻으리라!

관세음보살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생들의 고민과 고통을 해결해주고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부처님이다. 세상사는 동안 제일 큰 고통이 재물로 인한 고통으로 이것을 해결해주는 영험의 비방이 관세음보살 여의주 수진언이다. 재물이 없어 고통을 받고 있는 중생이 관세음보살 여의주 수진언을 몸에 지니고 성심으로 기도하면 곧 보물 재물과 땅과 땅속에 있는 보물까지도 얻으며 가지고 있는 재물이 헛대이 나가지 않는 영험을 담고 있는 법구다. 법구 제작전문 불광사에서 기도와 축원불공속에 만든 관세음여의주 수진언 복지갑은 지갑 앞면에 재물로 인한 고통을 해결하고 재물을 들어 오게하는 영험의 여의주수진언을 부착하고 내부에는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를 물리치는 삼고금강저를 순금도금해 넣어 소원을 이루게 했다.

고급천연오크나 가죽으로 일반지갑과는 비교할 수 없게 섬세하게 꾸며져 평생 사용할 수 있으며 출시 6개월도 안돼 관세음보살의 영험으로 아주 어렵던 사업과 장사가 잘되고, 뒷방을 돈이 들어오고, 부도 직전에 귀인을 만나고, 제조업은 만들면 팔리고, 부동산과 증권으로 큰 돈을 버는등, 수한 화제를 낳는 지갑이다. 여성용보라색은 성공과 번영을 뜻하며 여성이 항상 지니고 다니면 가정이 번영하고 사업장은 재물이 끊이지 않는다는 뜻을 담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축원불공을 드리고 보내준다. 남성용55,000원 여성용95,000원 전화(02)741-4488 농협053-12-102911

수맥 탐지기 엘로드 배우기 열풍

출장수맥 및 수맥과 감정 개업 또는 주말부업 노후 대책으로 인기

누구나 집에서 쉽게 배울 수 있어 인기

수맥파가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연구발표가 속속 밝혀지면서 수맥탐지기 엘로드를 배우려는 직장인과 부동산 중개사들까지 열풍이 일고 있다. 우리집 땅속에는 수맥이 흐르지 않나 하는 의구심에 수맥감정을 문의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선진국에는 수맥감정사무소가 많이 있으며 일반같은 경우 수맥감정법만까지 있다. 우리나라에는 수맥감정을 하고 싶어도 의뢰할 때가 없다. 환경오염으로 깨끗한 식수를 찾으려 해도 땅속에 있

금강저의 영험

험한세상 화를 미리 쫓는 수호신

왜! 금강저를 가지고 다녀야 하나?

삼고금강저는 인드라신(神)의 밀교의식에 쓰이는 불퇴전의 승리의 수호신으로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를 물리치고 막쳐 화를 미리 쫓으며 영험의 지혜인 금강의 지혜를 받아 승리한다는 부처님 위신력의 법구다. 1분양도 모르는 험한세상, 납치, 강도, 강간, 유괴, 각종사고등 근심과 걱정속에 사는 현실이다. 군에 있는 자녀, 팔자녀, 경찰관, 직장인, 학생,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분, 가정주부등 가정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영험의 수호신으로 여성은 핸드백속에 학생은 가방속에 남성은 지갑속 또는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도록 순금처리하여 축원불공을 마치고 불광사에서 전화로 판매하고 있다. 가격25,000원 문의 (02)741-4485 농협053-12-102911

금강저의 영험

험한세상 화를 미리 쫓는 수호신

왜! 금강저를 가지고 다녀야 하나?

삼고금강저는 인드라신(神)의 밀교의식에 쓰이는 불퇴전의 승리의 수호신으로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를 물리치고 막쳐 화를 미리 쫓으며 영험의 지혜인 금강의 지혜를 받아 승리한다는 부처님 위신력의 법구다. 1분양도 모르는 험한세상, 납치, 강도, 강간, 유괴, 각종사고등 근심과 걱정속에 사는 현실이다. 군에 있는 자녀, 팔자녀, 경찰관, 직장인, 학생,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분, 가정주부등 가정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영험의 수호신으로 여성은 핸드백속에 학생은 가방속에 남성은 지갑속 또는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도록 순금처리하여 축원불공을 마치고 불광사에서 전화로 판매하고 있다. 가격25,000원 문의 (02)741-4485 농협053-12-102911